

“메르스, 세계 보건에 큰 위협”

국제감염병저널 한국 사태 분석

“3주간 환자 한명이 4차까지 급속 감염시켜 다음주 이슬람권 성지순례, 국제 전파 우려 커져”

메르스가 한국에 이례적으로 퍼지면서 메르스가 바이러스 변이가 없는 현 상태에서 세계 보건에 중대한 위협(major threat)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제감염병학회가 발간하는 ‘국제감염병저널’(IJID) 최근호를 보면 이 저널은 사실에서 “3주 동안 한 명의 환자에서 2차·3차·4차 추정 감염이 빠르게 나타나며 한국은 중동 바깥에서 최대 메르스 발병국이 됐다”며 이치럼 강조했다.

IJID는 이슬람권의 최대 연중행사인 정기 성지순례(하지)가 이달 18일 시작되면서 메르스의 국제 전파 위험이 더 커진

다고 우려했다. 182개국 이슬람교도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모이면서 한국 같은 중동 바깥 국가로의 메르스 전파 사태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전파된 메르스는 애초 최초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행한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게 변이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중국과 한국의 유전자 분석에서는 이런 변이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메르스는 환자 간 직간접 접촉으로 전염돼 한국과 중동에서는 주로 특정 의료 기관에서 병이 도는 ‘병원 감염’(nosocomial transmission) 경향을 보였다. 인

플루엔자나 결핵처럼 공기로 전파돼 사회 곳곳을 덮치는 질환보다 전염력이 낮은 것이다.

IJID는 그러나 의료 수준이 낮고 바이러스 조기 검진 역량이 낮은 국가에 메르스가 전파되면 현재의 감염 형태만으로도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병이 급속하게 퍼져 15일 기준 확진자가 150명에 달하고 이중 16명이 숨졌다.

이런 이례적 전파 때문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럽의 유명 학술지 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는 한국의 메르스 퇴치를 돕고자 이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 인터넷 사용자에게 한해 자사의 의학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클리니컬키(ClinicalKey)’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구 보건소 긴급방역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6일 광주 북구 보건소(소장 김은숙) 질병관리팀 직원들이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초·중·고, 의심증세로 등교 못해도 출석 인정

발열 등 중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로 등교하지 못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한 메르스 대책 브리핑에서 전날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메르스 의심 학생이 등교하지 못할 때에는 담임교

사나 보건교사의 확인 작업을 거쳐 출석으로 처리해줄기로 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휴업종료 후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출석 인정 여부를 두고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방침이 어긋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총 6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학교들이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주에 시·도교육청의 메르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억원을 배정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모든 택시 방역

광주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메르스 예방 긴급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법인택시조합(이사장 정등광)과 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문옥)의 협조를 받아 광주 시내 전체 택시 8209대를 대상으로 충전소와 세차장에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방역은 법인택시는 지정 충전소 31곳에서, 개인택시는 제1충전소(본촌동), 제2충전소(신촌동)에서 손잡이와 의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은 ‘가뭄 안심지대’

광주 수돗물 공급원 동북댐 저수율 81% 전남 저수지 3206곳 58%...평년 수준도 “최장 250일 가뭄 지속돼도 걱정 없어”

중부권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광주·전남은 저수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수량 등을 감안해 당분간 가뭄 걱정은 없다는 것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뭄대책상황실을 가뭄·수급대책상황실로 확대하고, 상황실장을 국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는 등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지원 체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가뭄·수급대책상황실은 긴급 용수대책뿐 아니라 농산물 수급 안정, 병충해 방제, 재해지원 등으로 업무 분야를 넓힌 것이다.

중부권의 수위는 115.2m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가뭄이 극심했던 1994년 6월 29일 112.3m에 거의 근접하고 있을 만큼 물 부족 현상은 중부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저수

지 3206곳의 저수량은 15일 현재 58% (3억7700만톤)로 평년(5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전남지역 평균 강수량이 461.8mm로, 평년(440mm)보다 21.8mm(4.95%)의 비가 더 내렸다.

지난 14일에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줄기가 내리면서 이날 오후 7시 장성 58.5mm, 나주 41.5mm, 광주 33.5mm, 영광 24mm, 화순 21mm, 담양 11.5mm 등의 강수량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중부권은 10~20mm가 내리는데 그쳐 가뭄 해갈에 보탬이 안 됐다.

광주지역 수돗물 60%를 공급하고 있는 동북댐은 80.5%로 충분한 상태. 전남지역 광역수원지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주암댐(39%), 장흥댐(43%), 장성 평림댐(68%), 광양 수어댐(41%) 등 4

곳의 광역수원지 저수율은 39.9%(2014년 42%), 각 시·군의 지방수원지 저수율은 66.9%로 파악됐다.

전남지역의 모내기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현재 전남의 전체 벼 재배면적(16만8100ha) 중 92%에 달하는 15만 5126ha에 이미 모내기가 끝난 상태로, 이달말 파종이 완료까지 7400만t의 물이 더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3% 이상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보리는 전체 재배면적(16만 8100ha)의 82%(1만3320ha)가 이미 수확됐고, 마늘도 98%(5315ha) 수준까지 수확이 이뤄져 밭작물의 가뭄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앞으로 비가 안 오더라도 광역수원지의 경우 248일, 지방상수원은 290일을 각각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밭작물이 조금 걱정이었는데, 지난 14일 비로 위기를 벗어났다”며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상황은 수확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4대강 물 넘쳐나도 무용지물

전국 16개 보에 7.2억t...관개수로 설치 안해 활용 못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이 가뭄 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논밭이 짝 짝 갈라지고 있지만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에 가둔 물은 찰랑찰랑 넘치고 있다.

16일 국토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완료후 관개수로를 새롭게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관개수로를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전국 16개 보 안에 가둔 물은 농경지까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4대강에 설치된 전국 16개 보에는 7.2억t의 물이 가득 차 있다.

국토부를 비롯한 농림부, 농어촌공

사, 수자원공사 등의 물 관련기관 어디 하나 4대강 용수공급 계획을 통합관리하는 곳이 없다.

2009년부터 4대강 공사를 시작했지만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는 최근 들어서야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한 하천수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국 20여곳에 수리시설을 설치, 1억t 정도의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물 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독일도 메르스...65세 남성 사망

울 2월 UAE 여행 후 감염...장기 합병증 일으켜

65세의 독일 남성이 메르스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독일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중지 빌트 등 현지 언론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민덴-뤼베크 출신의 이 남성은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여행하고 돌아와 감염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 6일 밤 니더작센주 오스터카펠

른 지역의 한 병원에서 장기(臟器) 합병증으로 숨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앞서 메르스를 극복한 것으로 인정받아 지난달 중순부터 격리 치료를 끝내고 치료 병원을 옮겼다는 점에서 의료진은 당황해 하고 있다고 디 벨트가 보도했다. 벨트는 그러나 이 남성과 접촉한 이들

이 200명 이상이지만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 남성에 의한 추가 감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남성의 메르스 감염 사례는 니더작센주에선 처음이지만, 독일 전역에선 세 번째라고 소개했다.

앞선 두 사례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3월 UAE 출신의 73세 환자가 뮌헨에서 사망했고, 예선에선 한 환자가 온전히 치유됐다고 벨트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사원모집

당사는 항만역, 중량물, 특수화물, 플랜트, 조선선박블록 운송전문업체로서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신호수 00명
폴리아스크레인 00명
LLC크레인 00명
트랜스포터 00명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제출기한 2015년 7월말 까지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당사 E-mail ds4623388@naver.com 접수

(유)대승특수크레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6-8 Tel. (061)462-338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33호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3차) 수정공고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기반육성사업 '지원분야 및 내용' 수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16호(2015. 5. 29) 관련, 대경권 지역진흥사업의 취지를 살려 아래와 같이 수정하오니,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다. 지원분야 및 내용

수정 전	수정 후												
<p>○ 기술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 과제별 3억 / 년 이내 - 지원내용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p>* 주관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p>	<p>○ 기술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 과제별 3억 / 년 이내 - 지원내용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p>* 주관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모 방식</th> <th>대상과제</th> <th>지원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자유 공모</td> <td>○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 의료영상기기, 생체신호기기, 재활의료기기 3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td> <td>1년 이내</td> </tr> </tbody> </table>	공모 방식	대상과제	지원 기간	자유 공모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 의료영상기기, 생체신호기기, 재활의료기기 3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	1년 이내	<table border="1"> <thead> <tr> <th>공모 방식</th> <th>대상과제</th> <th>지원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자유 공모</td> <td>○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 영상진단기기, 생체진단기기, 재활의료기기 3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td> <td>1년 이내</td> </tr> </tbody> </table>	공모 방식	대상과제	지원 기간	자유 공모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 영상진단기기, 생체진단기기, 재활의료기기 3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	1년 이내
공모 방식	대상과제	지원 기간											
자유 공모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 의료영상기기, 생체신호기기, 재활의료기기 3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	1년 이내											
공모 방식	대상과제	지원 기간											
자유 공모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 영상진단기기, 생체진단기기, 재활의료기기 3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	1년 이내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등 기타사항 동일

2015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